

## 美 정부, 태평양 및 카리브 해상에서 2억 2800만 달러 상당의 마약 몰수

'20. 8. 27일(현지시간), 아리아나 파자도(Ariazna Fajardo)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 지방 법원 지방 검사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태평양 해상 및 카리브 해상에서 코카인 5톤 및 마리화나 7.7톤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자도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해 향후 30일 안으로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파자도 검사는 미국 해안 경비대의 USCGC 해밀턴(Hamilton) 753경비함이 몰수한 마약류를 미국에 위치한 플로리다(Florida)주 포트로더데일(Fort Lauderdale)시의 항구로 운송했으며 몰수한 마약이 2억 2800만 달러(한화 약 2699억원 7480만 원)에 상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자도 검사는 미국 정부가 위 마약 단속 작전을 통해 28명의 밀수범들을 검거하였으며 밀수범 가운데 중남미 국적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으나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인물은 없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파자도 검사는 "이 합동 단속 작전에는 미국 법무부 · 미국 해안경비대 · 미국 연방수사국 · 미국 국토안보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기관이 참여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속 작전에 참여한 미국 해안경비대원은 몰수한 마약의 원산지가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해안경비대원은 "금번 단속 작전에서 몰수한 마약류의 80%는 태평양 동부에서 적발했으며, 카리브 해상에서도 단속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태평양 작전보다는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시, 몰수한 마약이 콜롬비아산 혹은 에콰도르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콜롬비아 언론사인 NTN24社は 몰수된 마약류가 베네수엘라 마약조직인 태양의 카르텔(Cartel de los soles)의 마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숙단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파자도 검사는 "상기 작전은 최근에 완료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몰수한 마약류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Las autoridades de Estados Unidos incautaron cinco toneladas de cocaína y 7,7 de marihuana en el océano Pacífico y en varios puntos del mar Caribe.

Ariana Fajardo, fiscal del Distrito Sur de Florida, informó en declaraciones ofrecidas a la prensa que en aproximadamente 30 días se conocerán los avances de las investigaciones. El cargamento, que descendieron desde el escampavía Hamilton 753 en el puerto de Fort Lauderdale, en el estado de Florida, está avaluado en aproximadamente 228 millones de dólares.

La fiscal indicó, además, que 28 personas resultaron detenidas durante el operativo. Un miembro de la tripulación del barco de la Guardia Costera de Estados Unidos dijo que hay ciudadanos centroamericanos y suramericanos, pero descartó venezolanos.

“En este trabajo de incautación conjunto participaron el Departamento de Justicia, la Guardia Costera, la DEA, el FBI, el Departamento de Seguridad Nacional y demás instituciones estadounidenses”, precisó Fajardo.

La droga presuntamente provenía de Colombia o de Ecuador.

“No tenemos seguridad, pero nos imaginamos que la droga pudo haber salido de Colombia o Ecuador. Más del 80% de la droga es de el Pacífico oriental y de otros operativos que también se hicieron en el Caribe, pero son más pequeños”, dijo asimismo otro tripulante.

Inicialmente, el medio internacional NTN24 aseguró que el cargamento habría sido incautado al Cártel de los Soles, pero esto no fue confirmado por las autoridades.

“La información es muy reciente y no podemos dar detalles aún”, expresó Fajardo.